

제 163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동아시아 평화기념공원 연구의 의의와 전망

강연자: 김민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연구원인 김민환 박사의 세미나가 10 월 22 일 국제대학원 GL 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동아시아 평화기념공원 연구의 의의와 전망'라는 주제로 오후 12 시부터 2 시까지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김민환 박사는 오키나와평화기념공원, 대만 타이페이2.28평화기념공원, 제주4.3평화공원 등 동아시아 평화기념공원 탄생의 4가지 공통점들을 소개하면서 개별 국민국가 차원이 아닌 동아시아라는 넓은 맥락에서 이들 평화기념공원을 바라볼 경우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의미와 전망을 공유하는 것을 강연의 목표로 설정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시기적' 공통점이다. 시기적 공통점에는 폭력발생 시기의 공통점과 평화공원 성립 시기의 공통점으로 나뉜다. 우선 폭력발생 시기를 보면 일본 제국의 해체와 경계의 폭력적 재조정기라는 배경이 존재한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동아시아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하였지만, 이 경계선이 그어지는 과정이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또한 평화기념공원 성립 시기를 살펴보면, 성립기에는 연속적 폭력과 전쟁을 통한 냉전-분단 체제가 성립되었고, 1차 변동기에는 중앙에서의 분단해소(오키나와의 '반환' 혹은 '복귀')와 주변에서의 억압 강화(한국에서의 유신, 대만에서의 권력 부자세습)에 이어 오키나와평화기념공원이 성립되었다. 비대칭적 탈냉전 시대였던 2차 변동기에는 오키나와평화기념공원의 재편과 타이페이 2.28 평화기념공원 성립, 제주 4.3 평화공원 성립, 중국/북한에서의 평화공원 부재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어 완전한 탈냉전, 탈분단 시대인 해체기에는 새로운 동아시아체제의 형성되어 기존 평화기념공원의 재편과 새로운 유형의 평화공원 성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나 중국의 창법적 폭력은 현재 북한이나 중국체제의 성립에 기여한 정당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는 평화기념공원의 부재라는 측면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 및 미국의 후원을 받는 세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적 국내평정 등은 최근 그것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 해당 지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주로 '국가폭력'이라는 개념에 의해 이런 창법적 폭력의 폭력성이 비판되고 있고, 이러한 비판은 창법적 폭력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평화기념공원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경계(섬)에서 발생한 폭력들이라 지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오키나와 전과, 대만 2.28 사건, 제주 4.3사건, 중국내전과 한국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폭력과 전쟁은 최소 30만의 사람들이 죽는 과정이자,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국민국가 수립과정에서의 폭력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 수립과정의 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창법적 폭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창법적 폭력이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법 혹은 권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법을 설립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을 의미한다. 이 시기 동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발생한 국내평정 작업 등 폭력적인 상황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

세 번째는 국민국가의 분열이라는 성격적 공통점이다. 평화공원은 자국의 군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국민의 내외적 경계의 재구성하였다. 오키나와평화기념공원의 경우 오키나와 전은 일본군과 민간이 섞여있었고, 민간인을 간첩으로 몰아 학살하여 군민혼재의 상황에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이 내세운 '정의의 전쟁'인

오키나와 전을 자신들의 '조국수호전쟁'으로, 기억을 '일본화'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전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적 해석이 대두되었고, 초기 오키나와평화공원은 이것을 공간적 재현하는 공간이 되었다. 오키나와 전을 '조국수호전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양해가 필수적이었는데, 양국 중앙정부 사이의 교섭을 통해 결국 미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양해하는 것으로 타협되었다. 오키나와 전에 대한 군국주의적 재현의 양상은 유골의 중앙집중화와 기존 납골당과 위령탑의 철거 및 교체로 나타났다. 또한 마부니 언덕의 '야스쿠니화'가 진행되었는데, 위령탑의 합사 대상을 '남방지역' 전사자 포함한 것이나, 위령탑 비문의 전쟁 이름에 '대동아전쟁'을 표시한 점과, 관리주체기관의 이름이 '야스쿠니신사봉찬회오키나와지방본부' 였다는 점에서 군국주의적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오키나와 평화지원재단으로 바뀌었다. 마부니언덕은 오키나와전이 '공식적으로 끝난 장소로 일본의 '평화'와 '번영', 즉 '일본제국'의 영역을 상기시키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 후 오키나와 전 기억의 탈 일본화, 즉 '일본군 책임론'과 탈야스쿠니화가 시도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오키나와 인들에 의해 '오키나와를 돌려줘'라는 노래가 불리기 시작했던 사건과, 일본군에 의한 오키나와 주민 학살에 대한 실상이 밝혀진 것이 있었다. 또한 오키나와 전후 사학과 오키나와 사를 일본사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인들이 우릴 더 괴롭혔다"라는 증언채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화되어 있던 이 평화공원은 재편되게 되었으나, 데탕트의 영향으로 한국, 대만, 오키나와는 더 주변화 되어 버렸다.

오키나와 종전 50주년(1995년) 기념으로 마부니 언덕 위의 위령 조형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령 조형물인 '평화의초'가 건립되었다. 이것은 국적과 군적에 상관없이 '죽음 앞의 평등성'을 특징으로 하였으나, '전쟁책임'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비판과 '조국수호'를 위해 죽은 자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비판들이 뒤따랐다.

네 번째 공통점은 '평화'라는 명칭의 공통점이다. 2.28 국가기념비는 추상적이고 기념비적인 디자인으로 선정되었는데, 추상적인 기념비에 대한 대만민족주의자들의 대응은 공원명칭변화, 즉 신공원에서 2.28평화기념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제주 4.3평화공원성립에도 정치학이 작용되었는데,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은 국립묘지모델을 배격하고 지방적 특성을 강조하자고 하였으나, 정작 당선작은 국립묘지모델을 채택하고 지방적 특성 최소화하였다. 또한 한국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위령비에 태극기가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희생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희생자 가족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 4.3 평화공원에는 무장대 출신 희생자들의 위패 제거되어 빈 위패로 남아있는데, 이는 오히려 이들의 부재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90명의 위패를 제거해야 되는데 1500명 다 옮길 수 없어 뒤집어 놓은 것이 더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를 선별하는 권력이 바로 무서운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화'라는 단어를 달았지만 3군데 모두 다 평화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화기념공원 성립 자체는 동아시아의 냉전-분단의 해소과정을 암시하지만, 완전한 해소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며 오히려 평화기념공원은 '전쟁'이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 '평화'의 의미를 둘러싼 투쟁이 국민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는데, 제주 4.3평화공원의 '평화'는 북한이 사라져야 정착되는 평화와 북한과의 공존 혹은 탈분단에 의한 평화와 대립되고,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의 평화는 미군(및 자위대)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와 군사기지가 없어져야 생겨나는 평화가 대립된다. 마찬가지로 대만 2.28 평화기념공원에서의 평화는 중국본토와의 통일에 의해 찾아오는 평화와 대만독립에 의해 생겨나는 평화와 대립된다.

오키나와, 대만, 제주도는 모두 두 차례의 동아시아 체제 변화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하였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에서 다음의 동아시아 체제로 이행할 때 이 지역은 과연 어떤 운명과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자면, 평화적인 방식으로 체제이행이 수반된다면 이 세 곳에서 폭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새로운 동아시아 체제가 새로운 창법적 폭력을 수반한 폭력적인 방식으로 성립한다면 새로운 창법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이 세 지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질문: 창법적 폭력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달라

답변: 질서를 만드는 폭력이다. 프랑스혁명이 그 예이다. 반대로 보법적 폭력은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폭력을 뜻한다. 동아시아 전체 질서를 만들 때 나온 폭력이었고, 30만 명이 죽었는데도, 평화공원이 만들어지는데 50년 걸린 것도 보법적 폭력 때문이었다

질문: 피해자 입장에서 여태까지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이런 전쟁과 싸움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답변: 강제 진압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 해고되거나, 제주 내부에서도 암살이 일어나거나 암살당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공원을 완결된 공간으로 보지 않고 싸움이 계속되는 공간으로 평화공원을 바라보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평화공원에는 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열려있는 공간으로 제주도라고 생각되고, 오키나와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대만은 여지가 별로 없다. 적어도, 안 만드는 것보단 낫다고 본다. 닫는 것 말고, 여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정부가 만들었지만 여는 힘은 정부가 아닌 민간의 힘이다. 이 공간은 현재 전쟁터이지만, 이 맥락은 계속 바뀌어나갈 여지가 있다. 한계도 있지만,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질문: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설립될 수는 없었을까. 오키나와 위령비의 구슬이나, 제주도의 태극기는 희생자들이 내셔널 안에 편입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답변: 오키나와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개가 섞여있다. 국립의 공간과 헌법의 공간이 섞여있다. 평화공원은 어디에 있든 다 전쟁터이자, 싸움의 공간이다.